

倫理的 評價의 理念

金斗憲

一

一般으로 價値라하면 或은 우리의 欲求를 滿足케 하는 것 或은 우리의 快感을 이끄는 것 乃至 이런 것의 可能性 있는 것이라 한다. 그러면 果然 얻던 것을 우리는 價値 있는 것이라 하게 되는가? 「에-렌펠스」에 依하면 「事物의 價値라 함은 그것에 對한 우리의 欲求性(Begehrbarkeit)이다. 우리가 事實上 欲求하는 事物 或은 그 事物의 存在가 不確實한 境遇라도 우리가 欲求할 事物을 우리는 價値있다 한다.」(C. Ehrenfels; System der Werttheorie Ed. I. S. 53) 여기에 事物이라 함은 다만 Dinge(事物)뿐이 아니라 事象(Vorgaenge), 狀態(Zustand), 關係(Beziehung) 及 可能性(Moeglichkeit)을 意味한다. 따라서 그는 一切對象에 對한 欲求의 滿足을 價値의 根源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면 欲求라 함은 엇더한 心理的 作用인가? 「분트」의 心理學的 見解에 依하면 그것은 情意(Affekt)의 過程 即 意志過程이 或은 行爲에 實現되지 않을 때의 狀態에 不外한 것이니 結局 그것은 感情과 不可分離의 作用인 것이 分明하다. 그럼으로 「에-렌펠스」는 欲求의 生起 及 強弱을 全然感情에 依하여 制約된 것이라 한다. (ibd. S. 23) 이와 갓치 Hobbes, Spinoza도 또한 價値있는 것 即 善은 欲求의 對象에 있다 하였는 것이다.

이에 對하여 「마이농」에 依하면 「엇던 對象의 價値는 存在의 判斷으로 因하여 일으키게 된 快感의 感情에 基本한다.」(Meinong; Veber Werthaltung und Wert. S. 328)하였스니 이것은 快不快의 感情이 價値를 規定한다는 것이다. 이와 갓치 感情을 價値成立의 基礎로 봄은 從來의 만흔 價値論者의 見解요 또한 現代의 一般的 傾向이다. 그러나 이 快不快의 感情이란 것은 決코 心理的으로만 解釋할 바 아니다. 왜 그러냐하면 單純히 快感을 이끄는 것도 論理的이라 할 수 업는 境遇가 있을 것인 까닭이다. 萬若 價値 있는 것이 따라서 善인 것이 一種의 快樂이라고만 한다면 善은 快樂의 強度로써 計算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別서 量的 功利主義 「벤담」이 先取한 일이었다. 快樂

의 感情이 評價되려면 거기에는 다른 標準原理가 必要할 것이다. 이 標準에 依하여 評價될 感情을 비로소 道德的 感情이라 할 것이니 이것은 곧 價値感情이다. 그리하여 價値感情은 感覺的 感情과 다른 것이 明瞭하다. 盜食한 果實은 味覺의 快感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그 感情은 價値感情 即 道德的 快樂이 아니라 오히려 道德的 苦痛일 것임으로.

이와 갓치 感情이 價値規定의 基礎인 것은 틀림 없으나 感情이 道德的인가 아닌가는 全然 別異의 問題일 것이니 거기에는 언재든지 評價의 原理가 前提하고 잇음을 看過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이 價値判斷의 背面에는 었던 思索的 乃至 直觀的 假定이 存在할 것이다. 이러한 點에 잇서서 論理的 價値判斷은 經驗의 積極的 判斷과 目標의 水準에 잇을 것이다. (Sorley; Moral values and the idea of God. P. 70.) 그러나 論理的判斷은 다만 事實判斷(Urteil)이 아니고 價値判斷(Beurteilung)이다. 自然科學 또는 經驗科學의 方法은 一般으로 自然 또는 精神의 事實現象을 觀察, 記述, 說明하는데 잇다 한다. 따라서 이러한 科學은 自然 及 精神의 事象의 存在를 前提함으로부터 始作한다. 勿論 自然的 精神의 事象은 認識主觀과 全然 獨立하여 實在한 것은 아니다. 認識論 上의 模寫說(Abbildtheorie)가 誤謬임은 이것을 잘 말한다. 그런데 認識對象이 判斷의 形式에 낫타날 때는 곧 主辭와 賓辭와의 一致 不一致의 關係를 判定한대 不過한 것임으로 이것에 限할 동안 그것은 全然 沒價値的이라 하겠다. 이러한 事實判斷이 眞인가 僞인가 是認될 때 비로소 論理的 價値가 云謂될 것이다. 一般으로 이러한 判斷에 對하여 是認 또는 否認, 快 또는 不快의 情意的 要素가 附加될때 이른 바 評價(Beurteilung)가 成立될 것이다. 따라서 이 價値判斷의 境遇에는 그 對象이 一定한 規範 或은 標準에 適合함을 要求한다. Muirhead의 말을 빌린다면 價値判斷은 「判斷에 對한 判斷」이다. 例컨대 「二의 二倍는 四다」라는 命題에 對하여 眞이라고 是認 또는 否認될 것을 要함과 갓다. 或은 正義를 稱讚하고 不貞을 非難하며 或은 薔薇花를 보고 竊다하는 것과 갓다. 이러한 境遇에는 分明히 評價主觀의 是認 또는 否認의 表示를 要함으로 事實判斷이 沒價値的인 것과 다를 것이다. 「뻐사-」가 「『그것은 무어다』(So ist es) 하는 判斷은 『그것은 價値 잇다』(Das ist wertvoll) 또는 『그래야 될 것이다』(Das soll sein)하는 判斷과 全然 別異하다」(Augst Messer; Ethik. S. 56.) 하엿슴은 곧 이러한 것을 잘 말한 것이갓다.

二

그러나 이 判斷의 本質에 關한 問題는 이 갓치 簡單히 決定하기에는 넘어나 根本的 哲學的 課題일 것이다.

價値哲學의 先驗 Windelband는 肯定 또는 否認, 承認 또는 排斥의 作用을 特別히 重要한 要素로 삼게 된 近代의 判斷心理學에 따라 判斷이란 것을 表象 結合에 對한 是認 또는 否認이라고 하였다. 卽 이 是認否認은 情意的인 實踐 作用이오, 表象關係의 眞理價値에 對한 態度決定이라고 主張한다. 따라서 判斷한다는 것은 主辭와 賓辭의 結合을 眞 또는 僞로서 評價한다는 것이오, 그 結合을 眞 또는 僞로서 그것에 同意하거나 同意치 안거나 하는 일이다.

그러면 判斷은 곧 表象關係의 眞理評價이니 그에 잇서서는 判斷을 곧 價値 判斷과 同一視한 것이다. 그에 依하면 「A는 B다하는 所謂 肯定的 主張은 表象 A와 B와를 表示된 그대로 結合한 判斷(das Urteil)이 眞으로서 妥當할 것이라는 所信을 包含하였고 A는 B가 아니라는 否定的 主張도 그 以前에 表示된 또는 생각에 오른 判斷이 僞라 할 所信을 包含한다」(Windelband; Praeludien. I Bd. Aufl. S. 32)는 것이다. 그러나 別서 말한 바와 갓치 判斷은 언재던지 반드시 이러한 所信 卽 評價를 包含한 것이라 할 것이 아니라 判斷을 豫定하여 비로소 評價가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肯定的 主張에 關하여 본다면 A와 B가 眞이라고 判定됨은 A가 B라는 것을 前提한 것이오, 그 反對로 그 結合을 眞이라고 봄으로 A가 B라는 것을 認知하게 된 것은 아닐 것이다. 또 否定的 主張에 잇어서도 또한 그럴 것이니 卽 A가 B란 것이 僞라고 評價하게 되기에는 A가 B아닌 것을 먼저 認知함을 要할 것이다.

이와 갓치 單只 判斷이라 함은 眞僞 또는 妥當 不妥當의 價値判定과는 스사로 別異한 作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모든 判斷에는 論理的으로 말하여 可能的으로 價値判斷이 內在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잇을 것이나 모든 「判斷」이 그대로 「價値判斷」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岩波哲學講座, 叶邊重三述 判斷論 一七頁參照)

그러나 如何間 「빈델반드」가 判斷의 眞僞를 「規則」乃至 「規範」으로써 規定하려하여 「시구와르트」와 「에르드만」에 잇어서는 다만 心理的 必然性以上에 나가지 않았든 判斷 必然性を 規範의 意識에 基礎한 超個人的인 「當爲」의 必然이라고 說明하였음은 곧 이른바 價値判斷의 本質을 一層明瞭히 한 것이었다. 卽 그에 依하면 表象의 關係가 妥當하는가 하지 않은가-眞인가 僞인가는 表象이 그 關係를 通하여 「對象」에 對應하는가 하지 않은가에 依하여 決定된 것이 아니고 表象이 「規範」에 따라 關係되어 잇는가 않은가에 依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表象關係의 眞僞를 決定할 수 잇기 爲하여서는 「表象結合의 規則」이 었던 形式으로든지 우리의게 意識되야 잇을 것을 要한다. 이 規則의 意識은 곧 이른바 規範意識(Normbewusstsein)이다. 우리가 表象

의 關係에 對하여 適否 卽 眞僞를 判定함은 이 規範意識에 基本된 것이니 여기에 可 超個人的 當爲(Sollen)의 必然성이 認證되는 셈이다.

表象結合에 對한 評價의 普遍的 絶對的 尺度인 이 規範에 빚우어 妥當한 것 卽 眞인 것으로서 同意할 때 信念確信의 感 妥當性的 意識이라고 이른바 「明證의 感情」(Gefuehl der Evidenz)이 同伴한다. 다시 말하면 表象結合의 知的 作用 卽 判斷에 情意的 要素가 附加하는 것이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엄격한 意味에서 感情이 價値規定의 根本要素인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三

이와 같이 評價의 根底에 있는 價値感情은 結局 어떤 對象에 對한 主觀的 態度에 不過한 것임에 우리는 또한 이 「對象」에 對한 實在의 規定을 檢討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卽 價値感과 同時에 實象의 實在를 斷定함을 要한다 는 것이다.

「마이농」에 依하면 「價値感情은 存在感情(Existenzgefuehl)의 程度에 依한 것이니 이 存在感情의 強度는 肯定判斷과 否定判斷과의 相異에 依存한다. 卽 O라는 對象의 價値의 有無 또는 그 程度는 『O는 存在한다』는 肯定判斷에 依하여 이르킨 快感의 程度와 『O는 依存하지 않다』는 否定判斷에 同伴된 不快感의 強度에 依存한다.」(Meinong; Ueber Werthhaltung und Wert. S. 340.) 이에 依하며 「여기 菓자가 있다」는 肯定判斷에는 快感이 이어나고 「여기 菓자가 없다」는 否定判斷에 不快感이 이어난다 함으로 보아 틀림없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치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近處에 傳染病이 있다」는 肯定判斷에 快感이 이어나고 「近處에 傳染病이 없다」는 否定判에 不快感이 이어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境遇에 快不快 또는 滿足 不滿足의 感情은 表象結合의 結果인 「判斷」에 同伴한 것이오, 「對象」 그것에 同伴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對象으로서의 事物의 價値를 論할 때 判斷以前의 表象 그것에 對하여 快 不快의 感情을 認證할 수 있어서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마이농」과 같이 단지 存在判斷으로써 價値成立의 條件을 삼을 수 없을 것이다.

「에-랜펠스」도 大體로는 이 存在判斷說에 反對한 立場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또 이같이 말하였다. 「모든 存在에 向한 事實的 慾望 或은 可能的 慾望은 積極的 價値 卽 價値 그것을 構成하고 不存在에 向한 慾望은 消極的 價値 卽 不價値(Unwert)를 構成한다.」고 (Ehrenfels; Werttheorie S. 54.) 이것은 價値의 積極性和 消極性的의 相異를 對象의 存在 不存在에 對한 慾望如何에 依存한다 함이니 結局 「마이농」과 거름을 같이함이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對象이 當場에 存在한다 안한다 함으로써 價値規定의 條件을 삼을 수 없는 일일가 한다. 그 對象이 設或 現存하지 않을 境遇에도 우리

가 무엇 表象할 수 있는 對象에 對하여서는 어떤 程度라도의 價値를 認證할 수 있을 것이다. 「아로이스, 플라-」의 말을 빌어 말한다면「妥當의 現實的 形式(die Wirklichkeitformen der Gelten)에 屬한 모든 것」이다. (Aloys Mueller; Einleitung in die Philosophie, 2 Abschnit, Der Proflem Kreis der ethische Werte) 우리는 存在判斷보다도 더 根本적으로 對象의 表象 그것의 性質에 價値成立의 條件을 求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에-렌펠스」의 이른바 「表象의 可能的 直覺성과 活潑性」(das moeglich Anschaulichkeit und Lebenhaftigkeit der Vorstellung) (Werttheorie. S. 52)에 依하여 그것이 當場에 存在하든가 없든가를 不問하고 價値의 大小를 規定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存在의 「假定」만으로써도 對象에의 價値는 規定될 것이다. 처음에는 價値感情의 前提로서 對象의 存在判斷을 主張한 「마이농」도 디디여 「設定感情」(Annahmegefuehl)을 새우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떤 對象이 將來 存在할가 하지 않을가 決定되지 않은 境遇 따라서 그 對象의 存在 不存在에 對하여 全然 判定할 수 없을 境遇라도 때에 따라 우리는 어떤 對象의 價値를 말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抽象적으로 表示된 對象을 評價하는데 當하여서는 그 存在如何를 云謂치 않아도 좋다.」(ibd. S. 340)함은 一見 前後矛盾된 □說이겠으나 如何間 對象은 그것이 定言的인 것에만 限할 것이 아니라 假言的 選言的인 것에 對하여서도 足히 價値를 認證할 수 있을 것이다.

價値判斷의 對象은 단지 그 存在의 假想(assumption)만이라도 우리의 價値感을 얻을 수 있다고 主張하는 사람에 「어-반」이 있다. (urban's Valuations; it's law and nature F. 184) 即 定言的인 것 外에 假言的 選言的인 것으로써도 價値感을 成立케 하는데 足하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判斷을 意識하지 않더라도 좋다는 것이다. 그것은 美的 價値를 感得하는데 明瞭하다. 우리가 藝術을 鑑賞할 때 이러한 實在의 斷定을 意識하지 않더라도 그 美的 價値를 直接으로 直觀할 수 있다. 이러한 境遇를 「어-반」은 「推想」(I'presumpuon)의 斷定에 依한다고 한다. 이 「推想」의 斷定이 다른 斷定과 相異한 바는 實在가 識關 以下에 認證된 即 意識의 우에 아주 發現치 않은 것으로서 認證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思惟를 超越한 것이나 如何間 判斷의 一種인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 「推想」의 斷定은 어떠한가 나오게 되는 것인가 하면 그것은 「蘊蓄된 意義」(Punded meanfnk)의 發現이라 한다. 即 過去에 있어서 藝術에 □한 □□의 結果, 蘊蓄된 □□內容의 發現이라고 보는 것이다. 藝術的 敎養의 深淺如何에 依하여 價値感得의 程度가 틀림은 곳 이 까닭이다.

이러한 「推想」의 斷定에 依한 價値의 感得은 勿論 倫理的 價値의 領域에서도 可能할 것은 勿論이다. 그리하여 이것을 □□□□□□□□한 一뼘뿔반드一의 □□에서 一段의 進歩를 떠인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어반」이나 「뿔뿔반드一」에 있어서는 價値의 □□□ 主觀의 心理□客을 □□함으로 □□□함에는 □□□□한 □□□하겠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價値란것이 오즉 主觀의 産出한 것이라고만 보았든 것이다. 이러한 主觀主義的 傾向의 價値論은 일즉 先驗的 觀念論(der transzendentale Idealismus)의 確立으로부터 始作하여 近代 價値論의 廣汎한 領域에 亘하였다.

四

論理的 價値論의 主觀主義는 「칸트」의 이른바 「코페르니카스」的 轉向에 依하여 堅固한 基礎우에 서기 始作하였다. 「칸트」는 主觀의 表象作用을 가장 根本적으로 생각하여 모든 것을 이것에 依하여 包括하고 이것에 包括되지 않은 世界는 「物自體」(Ding an sich)로서 認識의 彼岸에 두고 말었다. 即 主觀의 思惟가 모든 것을 創出한다는 것이니 따라서 主觀에 드러오지 않은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形式的인 것만을 오직 「아푸리오리」라고 보았었다. 이러한 主觀의 獨裁에서 解放되야 客觀에의 轉向을 主唱하고 「아푸리오리」의 領域을 直觀的인 對象의 世界에 求할 것이라는 潮流가 輓近에 이러났다. 그것은 일즉 Brentano 一派의 對象論理學에 淵源하여 Husserl 을 中心으로한 現象學派에 依하여 組織된 것을 Max scheler가 倫理學界에 採用하였다.

「셀라-」는 「칸트」의 形式主義 倫理學에 對하여 몸소 實質主義를 標榜하고 「칸트」의 그것을 批判함으로 始作하여 그의 理論을 展開시켰다. 「칸트」에 依하면 「欲求能力의 對象(實質)을 意志의 規定原理로 豫想한 모든 實踐的 原理는 모다 經驗的이오, 何等의 實踐的 法則을 줄 수 없다한다. (Kant Kritiker der Praktischen Vernunft. S. 26) 또 이어 말하되 「欲求의 對象을 表象하여 그것이 如何한 表象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快 不快와 結合될가 또는 中性으로 될가는 先天的으로는 認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境遇에 選擇을 規定한 原理는 恒常 經驗的이오, 따라서 이 原理를 制約으로 豫想한 實踐的 實質的 原理로 또한 經驗的이 아닐 수 없다.」한다. (同上) 이것은 實質에 制約된 經驗的 原理는 何等의 客觀的, 普遍性이 없음으로 實踐的 法則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快 不快의 感情은 恒常 經驗的으로만 認識될 수 있는 것이오, 따라서 理性的 存在에 對하여서는 다같이 妥當할 수 없음으로 快 不快의 主觀的 條件에만 基本한 原理는 設或 格率될 수 있을지라도 法則될 수 없다 하였다. (ibid. S. 27) 따라서 그는 快 不快를 그 內容으로한

實質的 實踐原理은 곧 道德律이 될 수 없다하여 感情을 倫理價値界에서 全然 除外하고 말엇든 것이다.

「칸트」에 잇어서 實踐的 法則만이 道德의 規定根據될 所以는 그 制約이 모든 理性的 存在의 意志에 妥當한 것으로 承認된 까닭이다. 實로 「칸트」는 單只 主觀的인 格率(Maxime)에 對하여 客觀的 普遍 妥當的 原理인 實踐的 法則(Gesetz)을 確立한 것이 그의 倫理學樹立의 基礎이였다. 이러한 見地로 본다면 快 不快의 主觀的 感受性이 道德的일 수 없음은 明瞭하다. 따라서 幸 不幸의 主觀的 狀態는 道德世界에서 全然排除되고 마렸다. 오즉 幸 不幸이라 함은 實踐理性的 評價의 制約을 받아서 비로소 意義있게 되는 것이다. 「理性 法則에 依한 行爲만이 그 自身 善이요, 恒常이 法則에 依한 格率을 가진 意志는 絶對적으로 모든 點에 잇어서 善이요, 또한 모든 善의 最高制約이라.」 한다. (ibid S. 81.) 그의 有名한 文句 「絶對로 善이라 할 만한 것은 善意志 (gut Will)뿐이다」함은 곧 이러한 意味에 잇어서이다. 여기에 그의 形式主義的 倫理觀이 明瞭하다.

이와 같이 倫理價値의 絶對制約인 道德律을 純粹히 基礎세우기 爲하여서는 經驗的 感性的 方面을 道德原理構成의 範圍에서 徹底히 驅逐하고 實踐理性的 必然的 命令 即 義務意識의 先天性을 高唱하여 道德의 尊嚴을 力說하였다. 그리하여 一般으로 感情이라 할 만한 것을 全然 倫理價値의 世界에서 排除하였음에 不拘하고 오즉 「尊嚴長敬의 感情」(Ehrfurcht Gefuehl)만을 道德的 價値잇는 것으로 認容하였다. 그에 依하면 「道德律에 對한 尊敬은 知的 根據에 依하여 느낀 感情이요, 우리가 全然 先天的으로 認容할 수 잇는 또 그 必然性을 洞察할 수 잇는 唯一의 感情이다」하는 것이다. (ibid S. 95.) 卽이 感情은 單純한 快의 感情이 아니고 理性的인 當爲의 感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何等의 感性的 要素를 包含치 않은 先天的으로 純粹한 感情이요, 唯一한 道德的 感情이다. 그代로 사람의 愛情 또는 傾向性에서 나온 行爲는 모다 道德的 價値를 否認치 않을 수 없엇든 것이다.

五

이러한 主觀的 觀念的 價値倫理觀에 「셸라-」는 全然 反對하는 것이다. 卽事實의 世界現象의 世界는 그 自身 「아푸리오리」의 世界요, 그것은 「칸트」에 잇어서와 같이 오즉 法則의 賦與한 世界가 아니라 現象學的 直觀(Fhaenomenologische Anschauung) 卽 本質直觀에 依하여 純粹히 把握할 수 잇다한다. 따라서 倫理價値의 領域은 우리의 精神生活全體의 內容이다. 「셸라-」는 이것을 「精神의 情緒的인 것」(das emotionaln Geiste)이라 하였으니 그것은 우리의 思惟로부터 導出한 것이 아니라 本質的 直觀으로써 看取할 수 잇는

그리고 根源的으로 「아푸리오리」인 實質的 內容을 가진 것이다. (Max scheler; Der Formalismus in der Ethik und die materiale Wertethik. S. 59) 그것은 例컨대 「感得(Fuehlen), 選取(Vorziehen), 意慾(Wollen), 愛憎(Liebe und Hassen) 等の 作用으로 成立된 것이다.

그는 이 實質的 價値認識의 本質을 들어 이 같이 말한다.

「모든 價値先天(Wertapriori)의 (또 道德的인 것도의) 本來 있는 곳은 感得 選取 最後로 愛憎에 基本된 價値認識 或은 價値直觀과 價値 間의 關係 及 價値高低의 認識 即 道德的 認識에 있다. 이 認識은 따라서 知覺이라던가 思惟라던가와는 全然 다른 機能 及 作用으로된 價値世界의 唯一한 通路를 일운다. 內的 知覺 或은 觀察(그것으로는 單只 心理的인 것만이 所與한다)에 依함이 아니고 世界(그것이 心理的이거나 物理的이거나 其他 무엇이거나)와 의 愛情自身에 있어서 느끼고 있는 活氣있는 交通에 依하여 即 志向的 作用의 方案에 있어서만 價値와 그 □□가 閃出한다-. 그리하여 이와 같이 얻게 된 것 中에 志示的 內容이 있다.」(□□□□□□□□)

이와 같이 非論理的인 그리고 志示的인 것을 認證함으로써 感情과 理性과 의 二元論을 □□□□ □□□□□□□□의 倫理學의 構成을 確立하였다. 이제 그의 價値認識에 關한 見解의 全 容說을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을 것이다. (□□□□□ 現代倫理學의 理念七二頁參照)

「價値의 認識은

一, 先天的이오, 決코 經驗的인 아닌 것 그리고 그것은 □□의 認識이 아니오, 實質的 內容의 認識인 것.

二, 그리고 그것은 知覺이나 思惟에 依하지 않고 所謂 感性이나 悟性과는 全然 다른 作用이라고 볼 수 있는 價値感情 或은 價値直觀이라는 作用에만 依할 것.

三, 따라서 道德認識의 全 領域은 所謂 倫理的 認識의 領域과는 無 關係하다. 卽 非倫理的이다. 그러므로 이 認識이 틀린 것은 □□에 있어서의 □覺 (Tnouchung)에의 誤謬(Trrtum)은 아니다.

四, 認識의 作用은 臣은 □□物이 아니라 오히려 受容□이다. 卽 아직 存在치 않은 것을 생각해내거나 □造한 것이 아니라 이미 存在한 것, 所與한 것을 認知한 것이다.

五, 이와 같이 하여 所與의 內容은 現象(Phaenomen)이오 이 現象學 上의 現象은 實在物의 現出(Erscheinung eines Reulen)이라던가 □象(□cheln)이라던가와는 全然 關係없이 오히려 本質(Wesen)과 同義로 보아야 할 것임으로 이 價値感情 或은 直觀은 「本質直觀」의 一種 或은 現象學的 直觀 또는

現象學的 經驗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要件대 그는 徹頭徹尾하게 實質을 重要視하는 것이니 이 實質(Materie)란 것은 作用의 便으로 본다면 「精神의 情緒的인 것」이오, 對象의 便으로 본다면 道德的 事實 即 價値 그것이다. 그리하여 「精神의 情緒的인 것」도 事實 또는 現象을 어떠한 把握하고 感得하는가에 잇을 것이므로 對象을 重要視하는 것이 要點일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 事實 또는 現象은 그것이 곧 「아푸리오리」인 것임에 倫理的 價値의 領域은 마치 「라이나하」의 말과 같이 「限 없이 넓은 아푸리오리의 領域」에서 求할 수 잇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이어 더욱 發展시킨 사람은 곧 「니콜라이, 할트만」이다. 그의 倫理學 第二編 「倫理的 價値의 王國」(Nicolai Hartmann; Ethik, S. 227-564)은 곧 實質的 價値의 探索인 것이다.

六

그러면 果然 「셸라-」가 말한 바 道德的 事實 또는 倫理的 現象의 本質은 무엇인가? 그는 이것을 考察하기 爲하여 먼저 「價値概念의 根源 及 道德的 事實의 本質에 관한 不充分한 諸說」을 敍述批判하였다. (ibd. S. 162-206.)

첫 재로 생각되는 것은 道德的 事實을 所謂 「內的 經驗」(Innere Erfahrung)의 中에 잇다는 說이다. 即 우리가 內的으로 經驗하는 여러 가지 感情을 곧 道德的 事實이라한다. 그러나 그 感情, 그 自身이 善惡 또는 正 不正이라 함은 心理的 感情 그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을 것이니 이것은 벌써 우리의 壁頭に 考察한 바와 같이 價値로 認證할 수 없을 것이다. 곧 善惡의 區別에는 心理學的 區別이 없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셸라-」는 「內部知覺의 領域에는 道德的 事實이 없다」한다.(ibd. S. 165)

다음에는 所謂 「概念的 對象說(Ideale Gegenstaende-Theorie)이다. 이것은 벌써 「플라톤-」이 생각한 것과 같이 善은 곧 概念的 對象이오, 概念的 意味內容이라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善의 概念(Idee)없이도 善인 것을 認證할 수 잇는 것이다. 價値는 곧 概念의 所産이 아니오, 또한 主觀의 意味賦與도 아니라 오즉 事實的 直觀으로서 感行할 수 잇다한다. 그러므로 이미 말한바 「어-반」의 價値에 잇어서 「推想」(Presumption)이라고 하는 直觀을 主張함에 잇어서는 「셸라-」에 一脈 相通함을 發見하는 것이나 「어-반」에 잇어서는 全然 蘊蓄된 意味에 不過하다 하는 點에 全然 相異한 見地라 하겠다. 即 一은 主觀的 概念을 重要 視하고 他는 事實的 現象, 即 客觀的 對象을 主로 한 까닭이다. 一般으로 近世의 唯理論(例컨대 Spinoza, Leibniz, Descartes 等)도 또한 概念的 所産說에 그 軌를 같이 한 것이였다. 即 그들은 「完全性」(Vollkommenheit)이라는 概念을 마치 「플라톤-」의 「이데-」와

같이 價値의 基礎로 생각한 까닭이다. 그러나 이것을 모다 「셸라-」는 反對하였다.

다음에는 「倫理的 唯名論」(ethischer Nominalismus)이다. 卽 道德的 事實 또는 現象이란 것은 그 自身獨立存在란 것이 아니라 따라서 善인 것, 또는 惡인 것이 存在한 것이 아니라 다만 善 또는 惡의 이름 (名稱)에 不過한다는 것이다. Thomas Hobbes와 같은 사람은 그 極端한 論者이었다. 그에 依하면 모든 價値는 慾求에 依하여 비로소 나온 것이니 意慾이 잇는 다음에 價値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또한 主觀의 意味賦與에 不過한 者에 잇어서 「셸라-」의 反對함은 勿論이다.

다음에는 功利主義(Utilitarianismus)이다. Bentham, Mill에 依하면 卽 社會的 效用 如何에 道德價値가 된 것이니 그것은 善惡 그것 卽 價値自體가 무엇인가를 討究하지 않고 다만 「最大多數의 最大幸福」이라는 標準으로써 價値를 從屬케 함으로 根本的 誤謬을 免치 못한 것이었다.

最後로 「셸라-」는 Herbart, Adam Smith, Franz Brentano의 說한 바 「價値는 判斷의 中에 잇다」는 것을 非難한 것은 判斷이라는 것이 結局主觀의 法則 또는 理念에 準據한 까닭이라 한다. 그리하여 그는 말하되 「判斷은 아무것도 作出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構成하지 않는다。」고(ifd. S. 185) 그러나 果然 價値認知는 判斷과 全然 無關係한 것일 것인가? 그는 價値의 認知를 直觀-現象學的 直觀, 本質直觀, 實質的 直觀으로써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 이 直觀을 判斷이라 할 수 없을까? 勿論 그가 主張한 바와 같이 價値는 現象的 事實로서 그대로 存在한다하자. 그러나 그것을 感得하여 把握하는대는 곳 認知의 作用이 是認될 것이니 이 事實的 實質은 結局評價의 對象일 것임에 이 評價의 作用 卽 認知의 作用은 依然判斷의 一種이라 할 수 잇을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判斷의 形式을 排除하고 判斷의 對象(判斷의 內容)을 重要視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의 對象說은 오즉 主觀主義를 克服한 客觀主義의 開明이었다. 그러나 그의 客觀主義는 主觀에 分離한 그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超 主觀主義(Transsubjektismus)의 意味에서의 客觀主義이었다. 그럼으로 價値를 全然 受容的이라고만 보고 創造的이 아니라 함은 過言일 것이다. 價値의 看取, 感得 그것도 또한 創造的이라할 수 잇는 까닭이다. 萬若 價値把握의 作用을 다만 受容的인 것이라고만 본다면 그것은 模寫說의 誤謬을 反映함일 것이다. 「셸라-」가 이른바 「精神의 情緒的인 것」에서는 能動性 創造性을 보기에 足한 것이다. (一九三〇, 六, 一〇)